

민족국가간 축구경기는 평화적 전쟁 스펙터클

축구와 민족주의, 그 불온한 관계

황병주 | 한양대 사학과 강사

국가간 축구경기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민족주의가 현재화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된다. 물론 '애국심'의 형태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강력한 힘은 전쟁을 통해서 최대화되지만 축구는 바로 평화시기의 전쟁과 다름없다. 근대사회가 고안한 최고의 스펙터클로서 전쟁은 월드컵을 통해 평화적 전쟁 스펙터클로 재현/표상된다.



"히딩크, 우리의 꿈을 실현해달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응원전을 펼치는 붉은 악마.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다.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월드컵은 이미 전 세계, 아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가난한 나라건 부자 나라건 둥근 공을 둘러싼 열기는 지구 온난화로 가뜰이나 더운 둥근 지구를 더욱 숨막히게 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축구는 불평등한 세계 속에 유일하게 평등한 스포츠라고 한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아메리카가 주도하지 못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축구는 세계화의 또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한다.

어찌됐든 월드컵은 20세기 이래 세계 최대의 이벤트가 됐음이 분명하다. 올림픽을 능가한다는 그 규모와 영향력은 가히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화려한 스펙터클을 자랑하고 있다. 일찍이 푸고는 평화와 평화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 평화가 있을 뿐이라고 현대 세계질서를 진단했다. 잠재/현재적 전쟁기제로서의 국민국가 그리고 그 국민국가로 구성되는 세계질서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읽힌다. 월드컵을 바로 그 전쟁기제의 전쟁연습으로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국민국가 질서의 구축과 함께 세계화된 축구

엘리아스(N. Elias)는 스포츠를 문명화 과정으로 설명했지만 수천만명을 지극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살할 수 있는 근대문명이 야만의 또다른 이름이라면 축구라는 스포츠도 야만의 얼굴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인류의 원초적 공격성을 고도의 통제를 위한 문명사회의 규칙으로 순화시킴으로써 스포츠가 탄생했다는 엘리아스의 설명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문명화는 곧 민족화/국가화와 짝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기술인 육박전이 권투와 레슬링이라는 근대 스포츠로 문

명화됐듯이 축구 또한 포로들의 두개골을 차고 다니던 전장의 산물이라는 기원을 갖고 있다. 축구에 집단적 전쟁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은 지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전쟁의 주체는 근대 이후 거의 항상 국민국가였다. 미증유의 대학살을 경험했던 양차 세계대전을 위시해 20세기는 세계전쟁의 시대였다. 국민국가 자체가 19세기 내내 유럽을 휩쓸었던 내전의 산물이었고 내전을 정리한 국민국가는 곧 대외전쟁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국민국가간 전쟁은 이제 근대사회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국민국가간 전쟁과 갈등의 일상화는 곧 국민국가의 내적 통합으로 피드백돼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축구가 이런 국민국가 질서의 전 세계적 구축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세계화됐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균함과 성경을 앞세운 유럽의 전세계 지배는 곧 축구의 세계화이기도 했다. 한국에 최초로 축구를 전한 자들도 영국 해군이었으며 곧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남미도, 아프리카도 유럽의 균함과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공을 차게 된 것이다. 축구가 가난한 사람들의 스포츠라지만 전래 초기 남미와 한국의 축구는 사회 상류층들의 전유물이었다. 노동과 분리된 유희를 거의 알지 못했던 전근대인들에게 축구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었고 노동의 부담을 알지 못했던 가진 자들의 놀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통합이 관철되면서 지배계급의 스포츠가 지배적인 스포츠가 됐다.

박정희는 축구 경기 통해 상상의 공동체 구현하려 해

축구는 공과 사람과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이 가능하고 규칙 또한 다른 근대 스포츠에 비해 매우 단순

하다. 이런 특징이 축구가 가장 광범한 인기를 누리는 비결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축구의 대중성은 곧 권력의 구미를 당기게 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한 지배자들이 대중의 욕망에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일 것이며 빵과 서커스는 여전히 지배의 달콤함을 선사해주고 있다.

박정희는 한국 최초로 대중들의 욕망에 주목한 지배자로 기억될 지도 모른다. 이른바 '박스킵'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최초의 세계축구대회였으며 1970년대 그 열기는 대단했다. 산업화와 함께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와 TV는 축구를 통한 '상상의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는 유력한 매개였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축구 국가대표의 경기 중계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현재화하는 메커니즘을 상징한다.

1970년대에 축구 국가대표가 상상의 공동체를 구축했다면 조기축구회는 구체적 일상의 국가/민족주의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다. 1970년대 초부터 일어난 조기축구회 붐은 "건전한 정신과 협동 인화를 계도하여 국민총화단결을 촉진하는 데 기여"(*《월간 축구》* 1978년 1월호)하는 것으로 의미부여돼 1978년경이면 전국에 걸쳐 1천여개가 넘게 되고 회원수만도 5만여명을 웃돌았다.

한 조기축구회원은 "우리 모두 애국자가 될 수 없을까? 애국자란 반드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목숨 바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 일레븐이 각자의 포지션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자기 각자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월간 축구》* 1974년 1월호)고까지 주장했다. 국가권력의 민족/국가주의적 호명에 이처럼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을까.

조기축구회의 유력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국민체위' 신장이었다. 1970년대 내내 박정희 정권은 모든 체육행사와 스포츠를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개했으며 조기축구회 지원도 동일한 맥락에서 국민체위 향상을 추구한다고 상정됐다. 이는 곧 개인의 신체를 국가가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국력이라는 추상적 집합능력으로 수렴돼 개인의 건강함은 국가의 힘으로 나타나야 했다.

민족주의 전쟁은 월드컵으로 재현돼

이른바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는 데 조기축구회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스포츠 스펙터클로서 보는 축구다. 일찍이 드보르가 지적했듯이 축구 또한 스포츠 사회의 국가/민족적 표상이 됐다. 하는 스포츠는 이미 스포츠 스펙터클로서 보는 스포츠에 전유된 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모른다. 일상의 고달픔을 달래준다는 축구는 곧 "스펙터클은 최고의 이데올로기인데, 모든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본질, 즉 실제의 삶의 빈곤, 굴종, 부정을 남김 없이 노정하고 표출하기 때문이다"는 드보르의 지적과 겹쳐진다. 스포츠 스펙터클로서의 축구는 일상의 남루를 의

면하고 화려한 국가대표와의 자기동일시를 구현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하는 스포츠가 끊임없이 보는 스포츠에 의해 배제돼왔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하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포츠 자체가 근대적 현상이며 '문명화'의 산물로서 인간 신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아니라 고도의 통제에 따른 것이라면, 그 통제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의심해볼 만하다. 신체를 통제하고 생산적, 효율적 주체라는 미명 아래 순종적인 근대적 인간형을 양산하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오랜 꿈인 것이다.

민족주의는 더 이상 이성적 논리의 차원에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과 신체에 깊숙이 각인돼 있으며 끊임없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재화한다. 축구 한일전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정신 없는 일상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애국심'이 축구 한일전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거의 모든 한국인의 집단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무의식의 민족주의는 현실의 다양한 이벤트와 매개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 경험돼야만 한다. 국가간 축구경기는 바로 이런 무의식의 민족주의가 현재화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가 된다. 물론 '애국심'의 형태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강력한 힘은 전쟁을 통해서 최대화되지만 축구는 바로 평화시기의 전쟁과 다름 없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고안한 최고의 스포츠 스펙터클로서 전쟁은 월드컵을 통해 평화적 전쟁 스포츠 스펙터클로 재현/표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월드컵이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제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 괜한 심술이 아니라 도대체 월드컵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 축구전쟁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국가간 축구경기는 항상 최대한의 국가간 경쟁과 대립을 조장해왔다. 국가대표 경기는 항상 관심의 초점이면서 여타 다른 축구 경기는 관중석이 텅텅 비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축구 한일전(韓日戰,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전쟁)을 통해 양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왔을 것이다. 평화시 축구를 통해 다져진 애국심이 전쟁시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애국심은 좋은 민족주의고 일본의 애국심은 나쁜 민족주의의 꿈 군국주의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을까.

월드컵이 번성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로서 축구의 매력보다는 국민국가간 세계체제의 힘, 민족주의에 의거한다. 국민국가 체제로서 세계체제가 번성하는 한 월드컵의 미래는 밝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이 전쟁과 짝을 이뤘듯이 월드컵의 미래가 밝은 한 전쟁의 미래 또한 장밋빛이다. 핏빛 장밋빛 말이다. 이진 각본이 필요 없는 드라마다. ■

황병주씨는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현재 한양대 등에 출강한다. <박정희 시대의 국기와 민중>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